

<별표 3>

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

1. 발생원인

-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
- 바람이 강하거나 돌풍이 있을 때 산정에서 산 아래로 진화대 투입
- 불타기 쉬운 마른 낙엽·가지·나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강한 불길에 근접하여 진화
- 안전수칙 불이행 및 특히 야간 진화작업 시 무질서한 개별행동 등

2. 발생유형

-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질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
- 굴러 내리는 돌, 부러진 나무 등에 의한 부상
- 진화작업도중 장비의 사용 잘못으로 인한 부상
- 야간진화 과정에서 이동시 추락 등에 의한 사고

3. 작업시 행동요령

- 진화복·안전화·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, 화세에 둘러싸일 경우 방연마스크·방염텐트 등을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한다.
- 진화조는 2인 이상을 한조로 편성하여 이동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산불진화도구 사용 시 대원간의 거리는 3m이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.
-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진화작업을 하면서 이동한다.
- 자연적인 방화선을 이용하여 진화하고 계곡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.
- 급경사지에서 진화작업을 할 경우에는 낙석 등에 주의한다.
- 화두 양 측면을 우선 진화하고 화세가 약해지면 화두를 진화한다.
- 위험연료에 확산되는 불씨부터 진화하고 비산된 불은 낙하 즉시 진화한다.
- 산불은 기상변화에 따라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방향이 급변하므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2곳 이상 확인한다.
- 산불을 진화선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위험한 연료에 연

소 확산되는 불씨를 제거한다.

- 진화조장은 대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유지한다.
- 산불진화 중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·마른나무 등 연료가 적게 쌓인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방염텐트를 사용하거나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.
- 진화헬기에서 소화약제 또는 물을 투하할 때에는 투하지역에서 비행로의 90°방향으로 피하며,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안전모를 잡고 투하물에 의하여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물체를 단단히 잡는다.

4. 응급처치 요령

-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.
 - 신속·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한다.
 -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응급처치 한다.
 - 부상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락한다.
 - 쇼크예방을 위한 응급처치를 한다.
 - 다음 환자에게는 경구에 아무 것도 투여하면 안된다.
 - 의식이 없는 환자,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, 출혈이 심한 환자
 - 손상여부를 재차 확인한다.
 - 부상자를 옮길 때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.
- ※ 응급처치 구명 4단계 : 지혈 → 기도유지 → 상처보호 → 쇼크방지 및 치료